‘한국식품연구원’ 전북시대 개막

혁신도시 이전 환영식 개최

12개 공공기관 100% 완료

농식품산업 파트너십 기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마지막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이 이전을 시작한 25일 한국식품연구원 신청사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박용곤 한국식품연구원장 및 임직원들에게 전북이전을 환영하며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전북도는 9월 12일부터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전북이전에 따른 환영식을 25일 가졌다고 밝혔다.

한국식품연구원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전북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100% 모두 마무리됐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식품 기능성규명, 신소재, 신공정 연구개발과 기술지원, 식품인증, 분석 등을 수행하는 식품연구기관으로 6본부, 24단과 1개 부설기관이 있으며 신청사에는 총 400여명이 근무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한국식품연구원은 식품영양, 기능성분야에 세계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농식품산업 기술 혁신 파트너로서 든든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그동안의 노하우와 미래핵심기술을 기반으로 한국식품연구원이 세계수준의 식품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 더불어 전라북도 농식품산업도 함께 동반 성장해 나가자”고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 날 행사에 참석한 이전 직원을 격려하면서 전북도가 제2의 고향이 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이며 우리 지역 우수한 농산물과 지역상품 애용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도화지에 담는 내 고장 아름다움… 세번째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

내달 14일 군산 은파서 개최
참가대상 유치부까지 확대
10월 10일까지 참가자 모집

전라북도(지사 송하진)와 군산시(시장 문동신), 가천길재단(회장 이길여)이 전북지역 유·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제3회 가천(이길여)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10월 14일 ‘군산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광장’에서 열리는 제3회 가천(이길여) 그림그리기 대회는 내 고장 전라북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특히, 올해는 참가대상을 초·중·고교생에서 유치부까지 확대해 온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대회는 전북도·군산시·가천길재단이 공동주최하고, 군산시·가천문화재단·군산대야초등학교 총동문회가 주관하며 전라북도교육청·군산교육지원청·길병원·가천대학교 등이 후원한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가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gachon.or.kr)를 이용하거나, 가천(이길여) 그림그리기 대회 운영위원회 사무국(전북 군산시 대야관통로 141-13)으로 접수하면 되며, 접수기간은 10월 10일(화)까지이다.

대회에서 사용되는 도화지는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구분되어 당일 현장에서 주최측이 제공하고 도화지 외에 물감, 붓, 크레파스 등 필요물품은 개인이 준비하면 된다.

대회당일 우천시에는 1주일 연기할 예정이며, 우천안내를 비롯한 대회 소식과 자세한 대회요강은 가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gach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회 운영위원회는 가족단위 참가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참가학생과 가족들이 안전한 여건에서 대회가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참가자들이 그늘막, 텐트, 돗자리, 도시락 등을 미리 준비하면 더욱 편안한 환경에서 대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은 군산대야초등학교 김혜영 교장은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가 올해는 유치부까지 참가 범위가 늘어난 만큼 온 가족이 함께하는 나들이가 되기를 바란다”며 부푼 기대감을 드러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인문학 열풍에 빠져든 전북도”

도청도서관 10회 걸쳐 프로그램 운영
학생부터 노인까지 총 345명 참여
“천 년의 역사, 이해의 시간”… 호평

전북도청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17년 길 위의 인문학’을 지난 23일을 마지막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탐하라! 인문의 보고(寶庫) 전라북도’라는 타이틀로 5월부터 9월까지 3개 주제에 걸쳐, 7회 강연과 3회 탐방을 운영하였으며 고등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도민 345명이 참여했다.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지역주민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문학을 향유하게 함으로써 자아를 치유하고 삶의 행복을 느끼는 계기가 되도록 마련한 사업으로 책과 사람, 현장이 만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콘텐츠다.

제1주제 〈전주성(全州城)에 깃든 근현대 인문학 기행〉은 영화평론가 신귀백 강사와 함께 전주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살펴보고, 전주의 위엄 객사로부터 시작하여 일제하 전당포인 공익질옥 자리, 고물자 골목(청바지 골목), 경기전 까지 그 흔적을 탐방함으로써 전주가 가진 문화적 정체성의 특별함을 다시한번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다.

제2주제는 우리정서와 풍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속 문화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도내 마을숲, 돌탑, 선돌 등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의미를 탐구해보고 다른 지역보다 많은 마을신앙이 남아있는 진안 하초마을, 원강정마을 등을 직접 탐방해 보는 〈풍수에서 찾는 인문학 탐색〉을 진안마령고 이상훈교사와 함께 진행했다.

제3주제 〈전라북도, 전라도 천년을 이끌다〉는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홍성덕교수와 함께 호남의 정치, 문화, 사상을 선도해 왔던 전라북도의 역사와 유토피아를 꿈꾼 전북의 인물을 재조명해보았고 전라감영터, 여산동헌, 나바위성당, 미륵사지 등을 답사하여 변혁과 희망의 천년의 역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지금까지 우리지역 역사문화를 잘 몰랐던 것이 부끄럽고 심도 있는 강의와 재미있는 탐방으로 우리고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어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더욱 많은 도민과 새천년을 이어갈 자긍심을 공유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서관에서는 2018년에도 ‘길 위의 인문학’ 공모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2022년까지 미세먼지 30% ↓
당정, 오늘 종합대책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내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상세한 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년 의장은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아지고 주의보 경고발령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당정은 미세먼지 저감을 국민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안정을 위한 최우선 문제라는데 공감하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저감대책과 민생계층 보호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전 모두발언에서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문제는 일국의 상황을 넘었다”며 “중국과 같은 주변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반쪽자리 대책이 되지 않게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뉴시스

문 정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인선 완료

위원장에 장병규 · 부위원장에 김상희 · 교육회의 의장에 신인령

문재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장병규(44·사진 왼쪽) 블루홀 이사회 의장을 위촉했다.

또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으로는 김상희(63·사진 중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교육회의 의장에는 신인령(74·사진) 이화여대 법대 명예교수를 각각 위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인선을 단행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장병규 4차 산업혁명 위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대구과학고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과를 졸업했다. 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게임 업계인 네오위즈 이사,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대표를 거쳐 현재 블루홀 이사회의 의장을 지내고 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공주 사대부고와 이화여대 제약학과를 졸업했다.

18대 국회 때 당시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 부위원장은 이후 19대와 20대 경기 부천·소사 지역구에 당선돼 3선 의원이 됐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강원도 강릉 출신의 신인령 국가교육회 의장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한 뒤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노동법학회 회장과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이화여대 총장을 거쳐 현재 이화여대 법대 명예교수를 지내고 있다. /뉴시스